원시 어법 '죽방렴' 관련 어휘 연구

- 죽방렴 관련 명칭과 제작, 보수하기 관련 어휘 -

홍기옥*

〈차 례〉

1. 현장조사와 제보자
2. 죽방렴 관련 어휘 분석
  2.1. 죽방렴 관련 명칭
  2.2. 죽방렴 만들기 관련 어휘
  2.3. 죽방렴 보수하기 관련 어휘
3.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는 조수간만의 차이를 이용하여 남해안에서 주로 행해졌던 원시 어법(漁法)인 '죽방렴'에 관련된 어휘를 현장조사를 통해 정리,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죽방렴'과 관련된 어휘를 목록화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여, 어촌지역의 어법과 관련된 어휘장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볼 수 있다. 원시 어법인 죽방렴을 통한 어로가 몇 몇 지역에서 명맥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죽방렴 어업이 노년층 중심으로 그 방법이 이어져 오

* 위덕대학교 자율전공학부

고 있고, 어로 방식에서도 현대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와 관련된 어법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불투명하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어휘를 조사, 정리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작업은 시급한 일일 수 있다.

관련 어휘 조사는 현재도 죽방렴을 이용한 어로가 행해지고 있는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지역을 중심으로, 죽방렴을 소유하고 관련 어로를 3대째 하고 있는 제보자들을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조사를 통해 지역에서는 '발, 밭'으로 불리는 죽방렴 전체 명칭, 부분・종사자・단위 명칭, 죽방렴 만들기와 어업행위, 보수하기 관련 어휘, 어획물 처리, 고사지내기와 관련된 어휘, 관련된 관용표현 등의 범주에 따라 죽방렴과 관련된 어휘를 조사, 정리하였다. 조사를 통해 '죽방렴'에 관련된 222개 어휘를 수집하였고, 이 중 180개는 『표준국어대사전』이나 〈한민족언어정보화 방언검색기〉에 수록되지 않은 어형으로 죽방렴 관련 연구에서 발굴되지 않은 어형도 있었다.[1] 또한 현지에서 사용하는 죽방렴 관련 연어 구조의 어형도 수집,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원시 어법인 죽방렴 관련 어휘장을 정리할 수 있는 기초 작업이 되었으면 한다.

주제어: 죽방렴, 발, 죽방렴 멸치, 원시 어로 방식, 원시어법

1. 현장 조사와 제보자

죽방렴(竹方廉, Bamboo screen)[2]은 우리나라 원시 어법 중 하나

1) 어휘 외에도 관련 음성자료(구술자료 7, 분절음성 212), 영상자료(사진 35, 동영상 3)를 수집할 수 있었다.

2) 죽방렴 어구의 전문 용어는 정치식 압류어 수납어구류(定置式 壓流魚 受納漁具類)이다.

로 고기가 자주 드나드는 수심이 얕은 길목에 대나무를 이용한 발을 걸어 고기를 잡는 방식을 말한다. 5미터가 넘는 참나무를 V자 형태로 박고 그 사이에는 대나무로 만든 발을 걸어 밀물을 따라 들어오는 물고기를 잡는 함정어구이다. 죽방렴 어업은 우리나라 남해안의 사천시인 삼천포항과 남해군 창선 사이와 남해군 삼동면 지족리와 같은 협수로에서 이용되는 어로 방식으로, 이중 경남 남해군 지족리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죽방렴 어업이 이뤄지고 있는 지역으로, 마을 내 많은 가구 수가 죽방렴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지역의 죽방렴을 대상으로 관련 어휘를 수집, 정리하였다.

죽방렴 관련 조사[3]는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관련된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조사할 범주와 명칭을 나누어 정리하고, 현장조사 후 부족한 내용은 보충조사를 통해 보완하였다. 조사 범주는 죽방렴 관련 명칭에서부터 죽방렴에 관한 전반적인 작업을 범주별로 나누어 진행하였고, 더불어 죽방렴 어업 행위에 관련된 관용 표현을 조사에 포함하였다.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4]

---

3)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의 진행된 국립국어원의 어촌지역 생활어 조사 연구 내용 중 필자가 조사한 생활어휘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밝힌다. 국립국어원(2010) 연구 참조.

4) 본 논문에서는 분량상의 이유로 전체 연구 중 죽방렴 관련 명칭, 죽방렴 만들기, 보수하기와 관련된 어휘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이 외에 조사한 '어업 행위, 어획물 처리, 고사 지내기, 관용 표현' 등과 관련된 범주의 어휘는 다음 연구에서 다룰 예정이다. 죽방렴과 관련된 이러한 조사 범주는 문헌 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해서 죽방렴 어업이 행해지는 과정을 전반적으로 고려하고, 더불어 수집된 어휘를 정리하면서 추가로 범주를 설정한 것이다.

〈표 1〉 조사 내용

범주	어휘 항목
죽방렴 관련 명칭	전체, 부분, 종사자, 단위 명칭, 기타
죽방렴 만들기 관련	재료, 도구, 과정, 기타
어업 행위 관련	발 관리하기(도구, 행위), 고기 거두기(도구, 행위, 어종, 금기, 속설), 발 보수하기(도구, 재료, 행위)
어획물 처리 관련	어획물 명칭, 재료, 도구, 처리 과정, 상태, 음식, 금기와 속설
고사 지내기	시기, 음식, 장소, 행위
관용 표현	범주별 관용 표현

원시어업인 죽방렴에 관한 조사를 위해서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지족리에서 태어나 거주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동안 죽방렴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제보자로 하였다[5]. 할아버지 대에서부터 3대째 죽방렴에 종사하고 있는 임권택 씨, 아들까지 3대째 죽방렴에 종사하고 있는 임종수 씨를 주제보자로 하고, 50여 년 발 일꾼으로 일한 빈도석 씨와 이 마을 이장인 전대현 씨, 임권택 씨의 부인을 보조제보자로 하였다.

〈표 2〉 제보자

이름	성별	나이[6]	거주지	기타
빈도석	남	76	경남 남해군 삼동면	50년 이상 죽방렴 어업에 종사
임권택	남	74	경남 남해군 삼동면	3대째 죽방렴 어업에 종사
임종수	남	78	경남 남해군 삼동면	3대째 죽방렴 어업에 종사
전대현	남	66	경남 남해군 삼동면	삼동면 지족 2리 이장

5) 조사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보자를 다양하게 선정하는 것은 필요하나 현재 죽방렴 어업을 하고 있는 어민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 지역 토박이로 오랫동안 죽방렴 어업을 하고 있는 제보자 4인을 중심으로 깊이 있게 여러 차례 조사를 진행하였다.

6) 제보자의 나이는 조사를 처음 시작한 해를 기준으로 표시하였다.

조사방법은 조사 대상자와 밀착하여 직접 조사하는 민속지적(ethnography) 조사 방법[7]으로 해당 어휘를 심층 밀착 조사하였다. 죽방렴 관련 어휘 조사를 위해서 사용하는 조사 방법은 질문지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질문지 조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 설명하기 어려운 어휘는 사진을 병행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해당 어휘 항목을 조사하고, 나아가 조사 어휘를 심층 밀착 조사하여 해당 어휘의 하위 항목 어휘까지 수집하였다. 또한 비디오카메라와 녹음기 등을 사용하여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수집, 정리하였다.

2. 죽방렴 관련 어휘 분석

2.1. 죽방렴 관련 명칭

죽방렴과 관련된 명칭 조사에서는 죽방렴 전체 명칭, 죽방렴을 구성하는 부분 명칭, 종사자의 명칭, 죽방렴 단위에 대한 명칭을 조사하였다.

---

7) 민속지적 조사 방법은 사람들의 삶을 그들 자신의 시각으로부터, 그리고 그들 자신의 체험의 맥락에서 배우려는 특별한 방법론이다. 민속지적 방법의 공통적인 특징은 장시간 필드워크를 필요로 하는 참여적 관찰이 강조되는 것과 일상연구에 관련된 소규모 단위의 연구에 많이 활용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속지적 연구 방법은 반복적이고 귀납적인 연구 방법을 사용하며, 조사 현장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과 문화적인 맥락을 직접적이고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그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경청하며, 질문을 제기하여 발화를 풍부하게 이끌어 내는 것이 특징이다.

2.1.1 전체 명칭

죽방렴은 우리나라 전통 어법 중 하나로 고기가 자주 드나드는 수심이 매우 얕은 길목에 대나무 발을 걸어 고기를 잡는 방식을 말한다. 죽방렴 어법의 역사는 조선시대에는 '방렴(方廉)[8]'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이 지금의 죽방렴과 동일한 방법의 어구이다. 1469년 편찬된 『경상도 속찬지리지(慶尙道 續撰地理志)』에 남해현(南海縣)의 어계(魚契)에 대하여 "현(縣)의 대포(大浦), 파천포(巴川浦), 난보포(蘭甫浦)의 방렴(方廉)에서 석수어(石首魚), 홍어(洪魚), 문어(文魚)가 산출된다."고 기록되어 있다.[9] 이 기록으로 죽방렴의 역사가 조선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죽방렴에 대한 명칭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문헌 조사에서는 '죽방렴'이라는 용어보다는 '발'과 '밭'이라는 어휘가 많이 사용되고 있었는데 실제 지역의 주민들은 '발'이라는 어휘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 외에 죽방렴을 나타내는 용어에는 '어사리, 어살, 방전, 어량, 쇠장' 등의 어휘가 나타나고 있었다.

이 중 어살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물고기를 잡는 장치로 싸리, 참대, 장나무 따위를 개울, 강, 바다 따위에 날개 모양으로 둘러치거나 꽂아 나무 울타리를 친 다음 그 가운데에 그물을 달아 두거나 길발, 깃발, 통발과 같은 장치를 하여 그 안에 고기가 들어가서 잡히도록 한다.'라고 정의 되어 있으며, 표준국어대사전에도 '어사리'는 수록되어 있으나 그 의미가 '그물을 쳐서 한꺼번에 많은 물고기를 잡는 일'로 되어 있어 죽방렴과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어량'은 물고기를 잡는 장치로 물살을 가로막고 물길을 한 군

---

8) 물고기를 잡기 위하여 대나무나 갈대 따위로 엮은 발.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9) 국립민속박물관, 『경남 남해안 어업과 어업기술』, 필기획, 2002, 150~151쪽 참조.

데로만 터놓은 다음에 거기에 통발이나 살을 놓아 물고기를 잡는 것이다.



[사진 1] 죽방렴 전경



[사진 2] 죽방렴 발통

'쇠장'이라는 어휘는 비교적 최근에 나타난 명칭이다. 죽방렴이 대나무를 쳐서 발을 만드는 형태에서 이것보다 튼튼해서 오래 가는 쇠를 박아 죽방렴의 모양을 만들면서 나타날 말이라 볼 수 있다. 쇠로 만든 어장이므로 '쇠장'이라고 한다.

가. 10)죽방렴 한 {채} 두 {채} 그라지.
나. 보통 {발이라} 크제. 발.
다. {방전}이 지금 예 그러니까 조선시대 대동여지리지인가 그쪽에 지금 나오는 말인데 방전에서 인자 그 멸치 잡았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거든예.
라. 고기 잡는 어사리 저걸 가지고 {어량이라} 그른 식으로도 불러.
마. 그전에 인제 {쇠장} 하기 전에는 뭘 했냐 크며는 인자 짐목을 할 적에 간도에다가 참때같이 참으로 좋아요 요만한 기.
바. 옛날에 올라가면은 어사리가 지금 우리나라 그 향토사 자료에서 봐도 {어사리란} 말이 나오거든예.
사 예예 {어살}.

10) 제보자들의 구술 발화 내용을 채록하여 수록하였다. 해당 어휘를 확인할 수 있으며, 더불어 연관된 내용을 이해하기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죽방렴의 초기 형태는 석방렴인 '돌살[11]'을 들 수 있다. 대나무 발을 쳐 고기를 가두는 방식이 아니라 조수 간만 시 물이 드러나는 곳에 웅덩이를 파두고 주변에 자갈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주변에 큰 돌을 둘러치는 방법에서 시작해, 바닷가 주변에 있는 돌을 모아 간사지에 1~1.5m 높이로 길이는 약 100~150m 쯤 되게 담을 쌓아서 밀물 때 해안 가까이 왔던 고기가 썰물 때 돌담에 갇혀 빠져 나가지 못 하게 하는 것이 그 기원이라 한다. 남해군 삼동면이 있는 지족해협에는 '너무개'라는 곳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며 영지리 고잔 쪽의 바닷가에는 7~8개 정도 촘촘히 석방렴이 있었다고 한다. 이 석방렴이라는 어휘는 한자어로 지역민들은 석방렴보다는 '돌발, 돌빨'이라는 어휘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

죽방렴과는 유사하기는 하나 조금 다른 형태의 함정 어구에는 '대섭발'과 '선망'이 있다. 이 중 대섭발은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은 어휘로 갯벌 지역에 장대를 바다에 'V'자 형으로 박아 띠로 연결한 정점에 통을 만들어 고기를 잡는 장치를 말하며, '선망'은 바닷가에 기둥을 세워 사이에 그물을 걸어두어 물이 나면 그물에 걸린 고기를 잡은 장치이다. 선망과 죽방렴과 달리 고기가 잡히면 빠른 시간 내에 고기를 거둬야 한다. 고기가 그물에 걸려 있는 상태이므로 빨리 떼어내지 않으면 고기비늘에 상처가 나 죽어버리거나 선도가 좋지 못 하다고 한다.

가. {대섭발}은 인제 갓쪽으로 연안 쪽으로 갯벌이 많은 지역 갯벌이 많은 지역에 인자 그 시름쓰지예.
나. {선망} 그거는 아까 그 말한 기둥만 세아가지고 그물로 해놔가지고 부리가 머 그런 게 있어요.

11) 홍기옥, 「원시 어로방식 '돌살' 관련 어휘 연구」,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연구』75호, 2015, pp. 158-186 참조.

2.1.2. 부분 명칭

부분 명칭에서는 죽방렴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어휘를 조사하였다. 죽방렴은 기본적으로 원통 모양의 발통과 V자 모양의 날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외에도 죽방렴 어장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의 명칭을 조사하였다. 여기에서는 문헌 조사와는 현장에서 사용하는 어휘가 다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바다 위에 보이는 부분 이 외에 바다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다.

(1) 발통

'발통'은 죽방렴에서 고기가 최종적으로 가둬지는 둥근 모양의 큰 통이다. 날개에 해당되는 발카지를 따라 들어온 고기는 최종적으로 이 발통에 갇히는데 보통 지름이 8~10미터 정도 되며 예전에는 어른 2명이 발통에 들어가 족지로 고기를 가둬 뜰채로 건져 올렸다. 발통은 문헌 조사에서는 '임통'이라는 용어로 나타나고 있었으나 실제 조사에서는 '발통'이라는 어휘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둥근 모양에서 이와 유사한 형태인 발통을 가져온 것이 아닌가 하고 추정한다고 한다. 발통의 한 쪽 면은 죽방렴의 날개라 할 수 있는 발카지와 연결이 되어 있고, 반대쪽 발통 위쪽에는 외부로 통하는 출입문이 달려있다. 발통은 장목이라는 5~6m 정도 되는 참나무를 연결하여 만들었는데 장목을 40~50cm 정도의 간격으로 연결하여 둥근 형의 기본 구조를 만들고, 안쪽으로는 대나무를 쪼개 이어 만든 발을 걸어두었고 그 위에 다시 촘촘한 그물을 둘러쳐 둔다고 한다.

가. {발통은} 여 고기가 갇혀있는 거 {발통이고}, 길이가 한 십 미터. 한 직경이 십 미터 되지 십 미터 못 되는 것도 있고 보통

마 작은 거 한 팔 미터 될 끼고 보통 팔 미터 한 십 미터 그 중간에 다 되지요.



[사진 3] 죽방렴 발통 옆



[사진 4] 죽방렴 발통 위

(2) 발카지/ 카지/ 할가지

'발카지'는 죽방렴에서 'V'자 모양의 대나무 발로 죽방렴의 날개에 비유된다. 고기가 물을 따라 이곳으로 들어오면 반대 방향으로 나가지 못 하고 자연스럽게 물고기를 가두는 발통(임통)으로 들어가게 된다. 발카지는 기본적으로는 발통을 만드는 참나무 장목을 고정목으로 박아 두고, 고정목 사이는 대나무 발을 쳐서 만든다. 발통과 연결된 발카지 앞 부분은 다른 부분 보다 더 촘촘히 장목을 박고 대나무 발을 친다고 하다. 또한 양쪽 발카지는 바닷물이나 바람에 쓰러지지 않도록 줄로 연결해 단단히 이어 놓는다. '발카지'는 제보자에 따라 '카지, 할가지'라는 어휘를 사용하고 있었고 그 중 공통 부분은 '가지'라는 부분이다. 이는 참나무, 대나무 발 하나 하나를 '가지'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가. {발카지는} 이거 이거 날개 요래 요 쭉 나와 있는 거.
나. 긍께 좁아야만 고기가 넓은 저 아구에서 흔히 놀다가 좁은 고기도 {카지를} 많이 안 벌리도 고기를 잡을 수 있거든.
다. {할가지} 요기 쭉 요기 배겨있네 요서 요를 할가지라 부르고.

(3) 사목

'사목'은 문헌 조사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어휘로 제보자에 따르면 죽방렴에서 발카지와 발통 사이를 이르는 말로 고기가 들어오는 입구를 나타내는 말이다. 발통과 발카지 사이를 이어주는 부분으로 발통 끝 지점에서 발카지의 10~15미터에 이르는 지점을 말한다. 사목에는 안쪽으로 대나무를 쪼갠 발을 다른 부분 보다 더 촘촘히 대고 그 위로 그물을 걸어둔다.

가. {사목} 사목는 인제 고기가 들어오는 입구, 사목이라 카는 건 요것이 인제 통이고 요기서부터 한 요기까지 한 10미터 15미터 이 간격으로 요기는 그 나무만 박아놓고.

(4) 쇠발/ 새발

'쇠발'은 죽방렴의 발통 안에는 고기가 들어오는 통로가 위로 가면서 약간 좁아지는 'V'자 형으로 된 길이 있는데 이를 부르는 말이다. 고기가 발통으로 들어오는 길이기도 하고 발통 안으로 들어온 고기가 밖으로 나가지 못 하도록 'V'자 형태로 만들어 놓았다. '쇠발'은 제보자에 따라 '새발'이라는 어휘를 쓰기도 했는데 모양이 새 발을 닮아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정확한 표기는 알 수 없었다.



[사진 5] 죽방렴 부분 명칭

가. 살이라카는 거는 죽방에서 살이라 카는 건 {쇠발이} 있고. 쇠발은 이거 안에 요기 브이자형으로 이것이 요래 되어있는 거 요게 쇠발.

(5) 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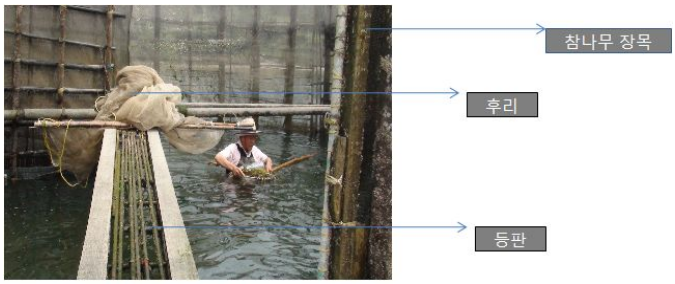
'발장'은 죽방렴에서 발통과 사목을 지나 길게 뻗은 발카지를 만드는 나무 하나 하나를 이르는 말이다. 5~6미터 정도의 단단한 참나무인 장목을 이용하여 만드는데 장목과 장목 사이는 대나무를 쪼개서 대나무 발을 만들어 연결하였다고 한다. 죽방렴의 날개인 발카지 하나 하나를 이르는 말인 발장은 일반적으로 참나무를 많이 사용하며 이 재료를 장목, 짐목, 발나무라 부른다.

가. 장목이 {발장} 요 장목이라 그러지. 나무 나무 요를 장목이라 그러고 {발장이나} 구급 장목 해뿌고. 이거는 뭐 {발장이지} 그냥.

(6) 등판

죽방렴에 고기는 발통 안에 갇히는데 갇힌 고기를 뜰채나 후리로 거두기 위해서 사람이 올라 설 수 있도록 만든 굵은 장목으로 만든 판을 '등판'이라 한다. 여기에 올라서서 뜰채로 고기를 뜨거나 적낫을 이용해 발 보수를 하였다고 한다. 등판 위에 올라서면 아래에 죽방렴에 갇힌 물고기가 자유롭게 노는 것을 볼 수 있다.

가. 아까 그 내가 말한 장목은 사람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타고 다니는 {등판이라}. 그게 요기 문에서부터 거기서 입구까지 사람 키가 인자 땅에서 요것이 지금 포개져가 있어도 이 옆에 통 옆에 요게는 수심이 깊어도 보통 뭐 보통 때 가면은 내가 서면 이정도 하면 배꼽무짜 이정도 수심이 얕제. 그 옆에 가 가지고 일 미터 이 미터 삼 미터 돼도 그래서 등판 카는 걸 타고인제 고기 잡고 쪽지로 뜨는 거제.



[사진 6] 죽방렴 부분 명칭

(7) 문

죽방렴에 갇힌 고기를 건지려면 죽방렴 외부에서 발통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 때 출입할 수 있는 입구가 문이다. 이 문은 보통 대나무를 엮어서 만들며 사람들이 작업하기 편하게 발통 뒤쪽 부분, 사목과 발카지가 있는 반대쪽에 있다. 보통 폭 50cm, 높이 70cm 정도 크기로 되어 있다고 한다.

가. {문이} 달려 있지. 문이 사람 하나 드나들 수 있는 데로.
나. 통을 입구를 해놨거든. 통. {출입문을} 사람이 들어갔다 나갔다 고기 잡으러 들어갔다 나갔다 이걸로 디다 했는데.

(8) 수망장

죽방렴을 만들 때는 바다 위에 보이는 구조물이 전부가 아니다. 위에는 발통과 살카지가 보이지만 바다 속에도 죽방렴을 이루는 구조물이 있고 이를 수망장이라 한다. 수망장은 죽방렴을 만들 때 제일 먼저 하는 작업으로 큰 돌을 여러 개 쌓아서 바다 속에 죽방렴 모양을 만드는 것이다. 일종의 죽방렴 설계도라 할 수 있는데 돌을 쌓아놓은 뒤 이 위에 큰 참나무를 박아 바다 위로 발을 세우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큰 돌을 바다로 나르는 것은 예전의 어구로는 힘든 작업이었다고 하며 이 작업을 위해서 오랜 시간이 필요

하였다고 한다.

가. 물 밑으로 박는 거 이런 거 {수망장이라} 카제. 그게 인제 사투리라도 수망장.

(9) 짐돌

죽방렴이 파도나 태풍에 떠내려가지 않게 줄을 매어 고정해 놓은 큰 돌을 '짐돌'이라 한다. 죽방렴은 참나무와 대나무를 엮어서 만든 것인데 이것이 단단히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파도나 태풍에 나무가 뜨거나 떠내려 가버린다고 한다. 이를 막기 위해 가마니 크기의 큰 돌을 죽방렴에 매달아 떠내려가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때 사용하는 돌을 짐돌이라 한다. 짐돌은 죽방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나 한 개의 죽방렴에 15~20개 정도의 짐돌을 달았다고 한다.

가. {짐돌이라크는} 것이 아까 여기에 이것이 맨들아지는 것이 지금은 이게 없어요. 요것이 지금 나무로 박은데다가 대로 엮어서 해놓은 건데 태풍이 불고하면 파도가 치고 하면 자꾸 움직인단 말이야. 그러니께 큰 돌로 지금 말하자면 한 뭐 소금 가마니 같은 그마이 그 큰 돌로 돌 밑에 이 땅에 박아놓는 게.

(10) 짐목/ 장목

'장목'과 '짐목'은 죽방렴을 만들 때 기둥이 되는 나무 하나 하나를 이르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죽방렴을 만들 때 바닷물이 잘 스며들지 않는다는 참나무를 많이 이용하는데 장목과 짐목은 이 참나무를 부르는 말이다. 이것이 발통을 만들 때 사용될 수도 있고 날개인 발카지를 만들 때 사용될 수도 있다. 죽방렴을 탄탄히 받쳐주는 역할을 하므로 바다에 박을 때 재료 선택부터 박는 작업까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한다. 참나무 장목의 길이는 대개 5~

6m 정도이며 지름이 10cm 이상이었다고 한다. 장목과 장목 사이는 대나무를 쪼개서 대나무 발을 만들어 연결하였다고 한다.

가. {장목이} 발장. {장목이래} 그러지 나무 요를 장목이라 그러고. 이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 나무 이거를 장목이라 그러고.
나. 그 {짐목을} 박으들라 크면은 요기 얕은 데는 쉬운데 깊은 데는 일곱질 여덟질 되거든 그런 데는 사람이 둘이 딱 인제 저저 말뚝 질거운께나 배는 더 올라가지 안하고 물 날, 들 때 해도 나무가 높으니깐 둘이 내요.

2.1.3. 종사자 명칭

죽방렴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부르는 명칭을 조사하였는데 여기서는 죽방렴을 소유한 사람과 주인에게 돈을 받으며 어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부르는 명칭이 달랐다.

(1) 발쟁이

'발쟁이'는 죽방렴에 종사하는 사람 중 죽방렴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을 일컫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죽방렴 일을 하는 사람을 지역에서는 발쟁이라 하였다. '발+쟁이'의 합성어형으로 볼 수 있으며 '장이'가 뒤의 'ㅣ' 모음의 영향으로 바뀐 형이다. 지역의 사람들은 예전에 발 일을 하는 사람을 천대해서 부르는 말이라 인식하고 있었다. 발쟁이는 죽방렴 일을 하는 사람을 부르는 명칭이기도 했지만 그 중 죽방렴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발 주인을 부르는 말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가. 하모 {발쟁이} 죽방에 그 일하는 사람 아이고 발 주인을 발쟁이라 카지. 인자 아 주인을 내 발로 가지고 저발 저발 발쟁이 누구 그러제. 임자를 말하는 거제.

(2) 발일꾼/ 삯꾼

죽방렴 일을 하는 사람 중 죽방렴을 소유하지는 않고 죽방렴에서 삯을 받고 일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 '발일꾼'과 '삯꾼'이 있다. 남해에는 죽방렴이 많으며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가족 단위로 일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하루에 두 번씩 발을 보러 나가는 일은 고된 일이므로 일꾼을 두는 경우로 있었다고 한다. 죽방렴 어장에서 일하는 돈을 받고 일하는 일꾼을 발일꾼이라 한다. 이는 죽방렴을 일컫는 '발'과 '일꾼'의 합성 어휘이다.

가. 일꾼은 아이제 일꾼은 보통 뭐 {삯꾼이라크고}.
나. {발 일꾼이라} 크지.

(3) 선수

죽방렴을 만들 때 발 만드는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을 '선수'라 한다. 예전에는 두 명의 일꾼이 함께 장목(짐목)을 박는 작업을 하였는데 이는 힘과 기술을 요하는 작업이었다고 한다. 발 만들기 전문 기술자인 선수는 일반인들이 하기 어려운, 쌓아진 돌무더기 위에 장목을 박는 일은 전문적으로 하였다고 한다.

가. {선수도} 있고, 그 중에는 인자 아 발 일꾼 나오면 선수가 앞장서가 그 사람이 전부다 지휘를 다 하는 기라.

2.1.4. 단위 명칭

일반적으로 죽방렴을 세는 단위는 '채'와 '통'이다. 이 중 '통'이라는 단위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한다. '채'는 집을 세는 단위와 동일하며, '통'은 죽방렴의 부분 명칭에서 고기가 갇히는 발통에서 유래한 말이라 한다. 제보자들은 세는 단위를 통, 채를 쓴다고 말하면서 발화 중간에는 '개'라는 어휘도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었

다. 따라서 '통'을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며 '채'와 '개'도 사용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예전에는 한 사람이 여러 죽방렴을 가지는 것을 허용했지만 현재에는 한 사람이 하나만 가질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놓았다고 한다. 남해군에 28통 정도 있다고 한다.

가. 죽방렴 한 개 두 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죽방렴 한 {채} 두 {채} 그라지.
나. {통도} 쓰이고 이제 어떤 기 옳은 말인지 모르지, 한 통을 이제 한 채 두채 그런 말로 부르제.
다. 여게는 한 {개백에} 못 가지고 있어요. 죽방렴 이 어업은 한 개백에 못 가지고 있어요.

2.1.5. 기타 발 명칭

기타 죽방렴을 나타내는 말에는 죽방렴의 상태에 따라 여러 이름이 있었고, 죽방렴도 개인의 이름처럼 이름을 부르기도 했다. 여기서는 죽방렴의 상태에 따른 명칭과 죽방렴의 이름 붙이기에 대해 정리하였다.

(1) 상태별 발 명칭

같은 지역에 있는 죽방렴이라고 해서 모든 발의 어획량이 같은 것은 아니다. 위치가 좋아서 고기가 많이 잡히는 발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발도 있다. 여기서는 어획량이 많은 발을 부르는 명칭과 그렇지 못한 발에 대한 명칭을 정리하였다.

① 좋은 발

고기가 잘 잡히는 좋은 발의 조건 중 하나는 죽방렴을 만들 때는 물의 흐름이 바른 곳에 발을 세우는 것이라고 한다. 그렇게 하면 물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고기 떼가 죽방렴 안으로 들어오기

가 쉽기 때문이다. 이런 위치에 있는 발은 어획량이 많은데 이처럼 고기가 많이 드는 발을 부르는 명칭은 따로 없다하고 그냥 '좋은 발'로 부른다고 한다. 제보자 임권택 씨의 발은 지족에서 좋은 발이라 소문이 나있다고 한다.

가. 그냥 {좋은 발이라} 카지뭐 그냥 좋은 발이라케여.

② 후진 발/ 돌째이 발

좋은 발에 반대되는 말에는 '후진 발, 돌째이 발'이 있다. '후진 발'은 '후지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고, '돌째이 발'은 '돌째이'가 많이 있는 발인데 '돌째이'는 작은 게를 이 지역에서 부르는 말로 돌째이가 많은 발은 해안가에 있는 발이고, 바닷길 중간에 있지 않고 해안 가까이에 있는 발은 어획량이 작다고 한다. 따라서 돌째이가 많이 나타나는 돌째이 발은 어획량이 작은 나쁜 발을 나타내는 뜻을 가진다고 한다. 이 말과 함께 '돌째이 바다'라는 말도 있는데 이도 물고기가 많이 잡히지 않는 바다를 나타낼 때 쓴다고 한다.

가. 보통 고기 많이 잡히는 발은 좋은 발이고 남치거는 {후진 발카고} 그러지 뭐.
나. {돌째이 발은} 안 잽히제. 돌째이는 발이 많이 붙어있거든. 가세 있는 발은 돌 바로 옆에 났다 들었다 한께 부러질 때 찾아 물로 들시보면 돌째이가 나타나요. 그런께 그런발이 돌째발이라고 여기 말로.

③ 여낀 발

'여낀 발'은 다른 발이나 주변 지형 사이에 있거나, 죽방렴과 죽방렴 사이에 있는 발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다. '엮다'라는 어휘의 의미에서 의미 확장이 된 말이라 생각할 수 있다.

가. {여낀발은} 낀 발이지, 사이에.

④ 가세(있는) 발

경상도에서는 '가(경계에 가까운 바깥쪽 부분)+에'라는 말의 방언형에 '가세'라는 말이 있다. '가세 발'은 방언형 '가세'라는 말이 결합된 합성어이다. 바다 길 가운데 있지 않고 해안 가까이에 있는 발을 '가세 발'이라 한다.

가. {가세 있는 발}은 돌 바로 옆에 났다 들었다 한께 부러질 때 찾아 물로 들시 보면 돌째이가 나타나요.

(2) 개별 발 명칭

죽방렴도 사람처럼 이름이 붙는다. 이름 붙이기는 대부분 발이 있는 주변의 지명을 가지고 와서 붙이거나 발주인인 발쟁이의 이름을 따 발 이름을 불렀다.

① 한영 발

주변 지명인 한영의 이름을 따 붙은 죽방렴 이름이다. 지명인 한영에 있는 발이라 해서 한영발이라 한다. 남해군 삼동면 지족에는 이처럼 주변 지형의 이름을 본 딴 발이 많았는데 '목 발', '치등끝 발, 강치 발, 돌박이 발, 해창 발, 백빙이 발' 등이 있었다.

가. 인제 그 바위가 한영이라. 인제 그게 그 옆에 있는 발이 {한영발}이라 크고.

② 권택이 발

발 주인의 이름을 따 죽방렴 이름을 붙인다. 제보자 임권택 씨의 발 이름은 '권택이 발'이다. 발쟁이의 이름을 그대로 따 죽방렴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다.

가. 저저 발 말할 때 {권택이 발} 그러고 {홍길성이 발} 그러제.

이상의 죽방렴 명칭에 관련된 내용을 어휘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죽방렴 관련 명칭

조사 어휘		
전체 명칭	죽방렴	죽방렴, 발, 밭, 어사리, 방전, 쇠장, 어량
	석방렴	돌빨, 돌발
	유사 어구	대섭발, 선망
부분 명칭	임통/ 발통, 발카지/ 카지/ 할가지/, 발장, 문, 사목, 장목/ 짐목, 수망장, 등판, 짐돌, 쇠발/ 새발	
종사자 명칭	발쟁이(주인), 밭일꾼/ 삯꾼(종사자), 선수(기술자)	
단위 명칭	통, 채, 개	
기타	상태별 명칭	좋은 발, 후진 발, 돌째이 발, 여낀 발, 가세 발
	개별 발 명칭	지명+발(한영발, 강치발), 주인명+발(권택이 발)

2.2. 죽방렴 만들기 관련 어휘

죽방렴을 좋은 위치에 튼튼히 잘 만드는 것은 이후의 어획량과도 연관이 있으므로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좋은 재료를 선택하여, 좋은 위치에 튼튼한 죽방렴 만들기는 모든 발쟁이들의 바람이라 한다. 죽방렴 만들기 관련한 어휘 조사는 재료, 도구, 시기, 작업 과정, 기타 만들기 관련 어휘로 나누어 진행하였고, 다양한 어휘를 수집할 수 있었다.

2.2.1. 재료

죽방렴을 만드는 대표적인 재료는 이름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대나무이다. 또한 대나무를 단단히 지지해줄 수 있는 참나무도 주요한 재료이다. 죽방렴의 재료가 되는 이 둘을 묶어 '발나무'나 '꼬장이'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가. 발장은 인자 {발나무} 한 개 한 개를 세아져가 있는.
나. 그는 이 아무 데나 {꼬장이를} 꼽아 놓나 싶어도 측량을 해가지고 정확히 딱 이기 자석이 되가 있어.

(1) 참나무

죽방렴을 파도와 바람으로부터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참나무이다. 참나무를 사용하는 이유는 단단해서이다. 나무가 단단해서 바닷물에 세워도 다른 나무에 비해 수명이 길다고 한다. 좋은 참나무 재료는 겨울에 나무를 베어두었다가 바싹 말린 것이다. 이렇게 하면 나무를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3월 정도에 나무에 물이 오르기 시작하는 재료를 사용하면 나무속에 수분 함량이 높아 벌레도 잘 생기고, 바다에 세워도 조직이 연해 죽방렴이 오래가지 못 한다고 한다. 산에서 참나무를 베려면 산림청에 허가를 받아서 여러 산에서 조금씩 채취해 사용한다고 한다. 이 참나무를 죽방렴 만들기에 쓸 때 장목이나 짐목으로 부른다. 다음의 예문은 참나무를 쓰는 이유와 좋은 참나무에 대한 제보자들의 발화이다.

가. 이걸 요걸 대로 만들고 요위에 장목 요거는 {참나무고}, 참나무가 그제는 다른 것이 없고 주로 전부 나무를 썼거든 참나무가 바닷물에 들어가면 이것이 원체 수명이 길어요. 소나무 같은 거는 바닷물에 들어가면 한 이삼일되면 소가 먹어서 썩어뿌리는데 참나무는 아무래도 좀 큰 거 근 한 십 년 칠, 팔 년 십 년까지 가거든.
나. 그는 이 아무데나 {꼬장이를} 꼽아 놓나 싶어도 측량을 해가지고 정확히 딱 이기 자석이 되가 있어.

(2) 대나무

일반적으로 죽방렴의 날개를 이루는 발카지 하나 하나인 발장을 연결하는 것은 대나무를 쪼개서 이를 발처럼 엮어 만든 대나무 발이다. 또한 쪼갠 대나무를 연결해 발을 만들 때도 대나무로 만든 줄을 사용한다고 한다. 대나무를 이용해 만들므로 죽방렴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다.

가. 이걸 요걸 {대로} 만들고 요위에 장목 요거는 참나무고.

2.2.2. 도구

참나무와 대나무 같은 재료가 있다면 죽방렴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도구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도구에는 말, 매, 물레, 발틀, 발돌, 수망장 박는 배인데 아래는 각각 조사한 내용이다.

(1) 말/ 박말/ 침/ 말뚝

'말'은 죽방렴을 만들 때 짐목이나 장목을 박기 위해 직경 10센티 정도 되는 나무 끝에 쇠를 둘러 씌워 만든 못 모양의 도구이다. 이것은 일종의 큰 못인데 전체를 쇠로 만든 못이 아니라 나무 끝을 뾰족하게 깎아 그 끝에 쇠를 씌워 만든 것이다. '말'을 제보자들은 '박말', '말뚝', '침'이라는 용어로 다양하게 사용하였다. 말은 바다 속에 쌓아놓은 돌 위에다 구멍을 박는 것이므로 단단한 재료로 만들어야 하는데 재료로 많이 이용되는 것이 박달나무이다. 발달나무로 만든 '말'이기 때문에 '박말'이라는 어휘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로 돌 위에 참나무가 박히는 자리를 먼저 만들고 말을 빼면 생기는 그 구멍에 참나무를 박는다. 돌 사이에 구멍을 만드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말을 빼고 참나무로 된 발장을 그 구멍에

쏙 집어넣는 것이 더 힘든 일이라 한다. 전문 기술을 가진 선수가 해야 한다.



[사진 7] 말 앞부분

아래의 예문은 말에 대한 제보자의 설명을 가져온 것이다.

가. 발 놓는 기구가 지금 요것이 둘레가 지금 직경이 한 십센치 넘어되겠구나 이런 큰 {말에다가} 이걸 깎아가지고서 끝에 쪽 뿌려놓고, 요기에다가 이래 생긴 철로 가지고가서 이래 만들어요. 쪼개 이래 둘러씨가 요서인자 짠짠해가 지금 여서 나무속을 깎아서 안빠지게끔 짠짠해놓고 이것을 이래 세워놓고서 여 위에다가 나무 매놓고 있는데 인자 그런 여문나무로 옛날에는 박달나무 박달나무 그걸로 가지고가서 여기서 둘이서 셋이서 요걸 박아요.

나. 구멍뚫는 {박말이라} {박말을} 박아가지고서 나무를 태워가지고서 이 옆에 똑같이 맞대게 옆에 갖다놔서 안 되거든.

다. 사람이 둘이 딱 인제 저저 {말뚝} 질거운께나 배는 더 올라가지 안 하고 물 날, 들 때 해도 나무가 높으니깐 둘이 내요.

라. {침만} 가지고 쳐이면 구멍만 뚫어 주제. 맞추는 그 사람 선수가 아닌기리. 그래가 여가 피가 벌게 나온다.

(2) 매/ 목매/ 망치

매는 말을 박을 때 사용하는 도구이다. 일종의 망치인 것이다. 바닷물 높이만큼 말이 길기 때문에 매를 가지고 말을 내리칠 때는

2명이 함께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한다. 나무로 만든 매를 사용하므로 '목매'라 부르기도 한다.

가. 구멍에 그러니까 요따가 남은 옆에 몽둥을 {매} 가지고 사람이 양쪽으로 둘이 올라서고 인자 흔들고 박아 놓은 구멍에 완전히 안 들어가니까 들어가라고 둘이 올라서고 옆에서 사람 너이가 또 잡고 흔들고 그럼인자 한 개가 완치가 되는거지.
나. 우에 있는 사람이 고만 그 {망치허고} 실 말고 머 빠지삐닌기라.

(3) 물레/ 발틀

'물레'와 '발틀'은 대나무를 쪼개어 대나무 발을 만들 때 대나무를 쪼개는 도구이다. 이중 '물레'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의미와는 차이가 있다. 도구의 한 쪽은 고정시켜 놓고 대나무를 밀면 대나무의 면이 잘 쪼개진다고 한다. '발틀'은 대나무를 쪼개는 기계화된 도구이다. 물레가 수작업으로 대나무를 쪼개는 도구라면 발틀은 기계화된 도구인 것이다. 물레와 발틀은 죽방렴을 만들 때와 보수할 때 필요한 도구이다.

가. {물레라카는} 거는 발 대 찌갤 때에 여를 박아놓고 대를 이쪽으로 혹 밀면 대가 착 쪼개지는 거 그걸 물레라고 카지.
나. {발틀은} 대를 넣기 위해서 여기 몽둥이 해놓고 돌로 한 개 한 개 엮어. 문에 치는 발 그런 식으로 엮지. 그게 기계 발틀 옆에 기계 같은 거를 발틀이라 카고.

(4) 발돌

발틀로 쪼갠 대나무를 발로 엮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로 돌에다 줄을 감아 발을 엮는데 이때 쓰이는 돌을 '발돌'이라 한다. 물레나 발틀로 쪼갠 대나무는 엮어서 발로 만들었는데 이 때 발돌이 필요했다. 바닷가에서 아무 돌이나 주워 실을 감아 쪼갠 대나무를 엮는데 사용하였으며, 돌에 실을 감으려면 둥근 돌보다는 길쭉하게

생긴 돌을 많이 사용하였다고 한다.

가. 그게 기계 발틀 옆에 기계 같은 거를 발틀이라 카고 조그만한 돌을 줄로 이매기위해서 주먹만한 돌로 매가지고 도자리 싸가지고 이게 넘기거든 실 돌리 감으면서 그걸 {발돌이라} 카고 실 감아 놓는 돌.

(5) 수망장 박는 배

파도가 치는 바다에 구조물을 세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죽방렴을 만들기 위해 돌을 붓고 나무를 세우는 일을 할 때 이동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배이고, 이 배를 '수망장 박는 배'라 한다. 예전에는 큰 배가 많이 없었으므로 작업을 위해서는 육지와 어장 사이를 여러 번 왕복을 해야 했다. 나무를 박을 때는 배 위에서 작업을 하였는데 이 배가 바로 수망장 박는 배이다.

가. {수망장 박는 배는} 그 당시 더러서 적어도 한 삼십분 내지 사십분을 경과를 하는 기라. 또 막 찾을라 카면 그런께 어깨가 하면 땡겨. 피가 나서 더 흘러사 옷을 입어도 옷 다 떨어져 삐리고.

2.2.3. 시기

죽방렴에 관련된 작업은 가급적 물이 많이 빠지는 간조시에 한다. 죽방렴을 만들 때 돌을 갖다 붓거나 돌 위에 짐목을 박을 때도 물이 많이 빠진 간조시를 이용하고 죽방렴에 갇힌 고기를 거두는 일도 간조시를 이용한다.

가. 물때 {간조시에} 어장이 인자 소실해지면 시기 차이도 없고 여름이고 겨울이고 간조시에 작업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작업을 하는 기지.

2.2.4. 작업 과정

죽방렴을 만들 때는 먼저 바다 속에 큰 돌을 쌓아 죽방렴의 형태를 만든다. 바다 속에 죽방렴의 설계도를 그려놓는 것이다. 그 위에 베어 놓은 참나무를 박아 세운다. 그 다음 고기를 가둬두는 발통을 만들고, 날개인 발카지를 만든다. 이는 아주 기술적인 일이며 이러한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을 '선수'라 한다. 이 작업은 간조가 되고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물의 흐름을 보아 만드는데 전통방식으로 죽방렴을 만드는 데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며, 살의 길이는 집안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만조 때 바다 물의 높이에 맞춰 만든다고 한다.

(1) 나무 베다/ 나무 비다

죽방렴을 만들 때 짐목이 되는 참나무를 베어서 저장하는 일은 중요하다. 그리고 이 일은 죽방렴을 만드는 일의 시작이기도 하다. 물이 마른 참나무를 단단히 건조해 짐목으로 사용하면 참나무 안으로 물이 잘 스며들지 않아 죽방렴의 수명이 길기 때문이다. 하지만 잘 못 해서 봄에 물이 오르는 나무를 베어 사용하면 바닷물을 흡수해 나무가 물렁해져 죽방렴 수명이 짧다고 한다.

> 가. 본인이 {베와야지} 산에 가서 산주에 가서 이야기해서 요거 요거 내가 쓰겠다고 산주가 베가 주는 것도 있고 자기가 베가 오는 것도 있고. 일단 돌을 박아놓고 나무 꽂고 옛날 방식엔 그런 식으로 했지요.

(2) 돌 붓다→ 돌 쌓다

죽방렴을 만들기 위해서는 큰 돌을 가져와 죽방렴을 만들려고 하는 위치에 돌을 부어서 쌓는 작업을 한다. 하지만 파도나 태풍 때문에 돌이 제자리에 있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오랜 기간 동안

돌을 부어 쌓는 작업은 계속된다고 하고 심지어 몇 년이 걸리기도 한다고 한다. 돌을 쌓는 것은 죽방렴을 튼튼히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며, 또한 죽방렴의 설계도 역할도 한다.

가. 바다에 수심이 거의 얕은 데가 아니고 불과 2미터 내지 간조되면 일 미터, 이 미터 일 미터 되는데 순전히 {돌로 갖다가 세다가 부어놓고} 돌 위에다 나무를 올리지.
나. {돌같은 걸 쌓아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갖다 바다에 갖다 투석한 기거든. 또 이게 돌이 얹히가지고 또 바람이 불면 지절로 무너져내리고. 긍께 또 무너지면 뒤에 또 부설하고 해마다 돌을 갖다 집어넣는 거지.

(3) 박말을 박다→ 구녕 뚫다

돌쌓기를 하고 나서 돌 사이에 짐목의 자리인 구멍을 뚫기 위해 큰 못 모양의 말을 돌 위에 세운다. 이 작업은 혼자서는 힘들기 때문에 최소 2인이 1조가 되어 작업을 하며, 이 일은 선수가 주도한다고 한다. 수망장 박는 배를 타고 이 작업을 하며 한사람 어깨 위에 다른 한 사람이 올라타서 큰 망치로 박는 작업을 한다.

가. 구멍 뚫는 박말이라 {박말을 박아가지고서} 나무를 태워가지고서 이 옆에 똑같이 맞대게 옆에 갖다놔서 안 되거든.
나. 묶었던 걸 가주고 이 {구녕을 뚫어가지고} 거따가 쏙 쏙 주여코 그래가지고.

(4) 나무를 맞대다→ 말을 쏙 빼내다→ 쏙쏙 주옇다→ 폭 들어가다

돌에 말을 박아 구멍을 뚫고 나면, 그 구멍에 짐목을 넣어 박기 위해 짐목으로 쓸 참나무를 말 옆에 붙여 그 다음 작업을 진행하는데 구멍을 뚫던 말을 빼고 그 자리에 짐목을 대신 끼워 넣는다.

가. 구멍 뚫는 박말이라. 박말을 박아가지고서 나무를 태워가지고서 이 옆에 똑같이 {맞대게} 옆에 갖다놔서 안 되거든. 이것도 같이 바다에 다 해서 이거 전부다 그거 또 안보고서 감각을 가지고 딱 맞추는 사람이 있어. 딴 사람들은 세 번 네 번 해도 안 맞는데 잘하는 사람은 한 번 두 번하면 딱 갖다 넣고 {쏙 빼면} 남은 게 폭 들어간단 말이야. 구멍에 그러니까 요따가 남은 옆에 몽둥을 매 가지고 사람이 양쪽으로 둘이 올라서고 인자 흔들고 박아 놓은 구멍에 완전히 안 들어가니까 들어가라고 둘이 올라서고 옆에서 사람 너이가 또 잡고 흔들고 그럼인자 한 개가 완치가 되는 거지.

나. 묶었던 걸 가주고 이 구녕을 뚫어가지고 거따가 {쏙 쏙 주여코} 그래가지고,

(5) 매로 박다

짐목을 말로 뚫은 구멍에 넣고 나서 단단히 고정하기 위해 나무로 만든 큰 망치로 짐목을 쳐서 박다.

가. 구멍에 그러니까 요따가 남은 옆에 몽둥을 {매 가지고} 사람이 양쪽으로 둘이 올라서고 인자 흔들고 {박아} 놓은 구멍에 완전히 안 들어가니까 들어가라고 둘이 올라서고 옆에서 사람 너이가 또 잡고 흔들고 그럼 인자 한 개가 되는 거지.

(6) 나무 올리다/ 나무 꽂다/ 나무 박다/ 꼬장이 꼽다

죽방렴을 만들기 위해 바다 속에 돌을 부어 쌓고 그 위에 참나무나 대나무를 박는 것을 '나무 올리다, 나무 박다, 나무 꽂다, 꼬장이 꼽다'라고 한다. '꼬장이'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죽방렴의 재료가 되는 참나무와 대나무를 말한다.

가. 바다에 수심이 거의 얕은 데가 아니고 불과 2미터 내지 간조되면 일 미터, 이 미터, 일 미터 되는데 순전히 돌로 갖다가 세다가 부어놓고 돌 위에다 {나무를 올리지}.

나. 일단 돌을 박아놓고 {나무 구박을 해가지고 꽂고} 인자 지금은 인자 넘은 다 해놓은데 보수만 하지만 옛날 방식엔 그런 식으로 했지요.
다. 여문 나무로 옛날에는 박달나무, 박달나무 그걸로 가지고가서 여기서 둘이서 셋이서 요걸 {박아요}.

(7) 대 찌갠다

대나무 발을 만들기 위해 대나무를 쪼개서 작업을 하는데 대나무를 쪼개는 것을 '대 찌갠다, 대 찌개다'라고 한다. 대나무를 쪼갤 때는 물레나 발틀을 이용한다.

가. 발로 엮을라 카면 {대로 가져가서 찌갠다} 카는 건 쪼개는 카지. 여기 머 사투리로 찌갠다꼬 쪼갠다카고. 요 손가락 마시 이 정도 되그로 통대가 찌개하개지고서 막기 위해서 엮거든.

(8) 줄로 끼다/ 줄로 매다

쪼갠 대나무는 대나무 사이에 줄을 끼워 단단히 줄로 매야 한다. 그렇게 줄로 엮어 대나무 발을 만들어 세워진 장목과 장목 사이에 연결한다.

가. 대놓고 밖에서 {줄로 끼가지고} 안에 사람이 하나서고 바깥에 사람이 하나서고 서로 끼가지고 둘이서 밖에서 줄을 매고 그래서 안이 깨끗해지거든 인자 밖에서 트실트실 매듭이 있어도 괜찮아도 안에는 인자 고기가 있어야 되니까.
나. 옛날엔 참나무 우리 홈 여다가 생긴 그대로 좀 대가지고 둘러매고 둘러가 매면 또 대라가지고서 대로 찌게가지고서 {대껍데기 그걸로 다깠어요}.

(9) 대로 엮다/ 대껍데기로 매다

대나무를 물레와 발틀을 이용해 쪼갠 후 이를 실로 엮어 대나무 발을 만든다. 만든 대나무 발은 장목(짐목) 사이를 연결하는데 이

때 대나무 껍질을 이용한다고 한다. 대나무 껍질 외에 칡도 이용된다.

가. 그렇게 매놓고 그 안에 {대로 엮어놓고} 또 그 세면대마다 또 안에 또 대를 넣고 묶지. 그러니 대가 안 떨어져나가지 이게.

(10) 짐돌 매다

죽방렴은 참나무와 대나무를 엮어서 만든 것인데 이것이 단단히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파도나 태풍에 나무가 뜨거나 떠내려 가버린다고 한다. 이를 막기 위해 가마니 크기의 큰 돌을 죽방렴에 매달아 떠내려가는 것을 방지하였다고 한다. 짐돌은 죽방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나 한 개의 죽방렴에 15~20개 정도의 짐돌을 달았다고 한다.

가. 이것을 인자 태풍이 불었을 때 움직이면 못 올라오기 위해서 올라오면 손실이 있어 없어지거든 그러니께 큰 돌로 지금 말하자면 한 뭐 소금 가마니 같은 그마이 그 큰 돌로 돌 밑에 이 땅에 박아놓죠. 일단 줄로 매서 땅에 안 닿게끔 이것을 딱 매놓지 뺑 돌아가면서 {매놨지}. 지금은 인제 철근 박아놓으께네.

2.2.5. 기타

(1) 나무 물빠지다

'나무 물 빠지다'라는 말은 '나무속에 있는 물기가 마르다.'라는 의미이다. 죽방렴에 사용하는 나무는 나무 안에 물이 차 있는 것보다는 물이 다 마른 나무를 사용한다. 이런 나무는 단단해서 죽방렴으로 만들었을 경우도 수명이 길기 때문이다. 보통 겨울에 베어 놓은 물 빠진 나무가 죽방렴을 만들 때 사용하기 좋다고 한다.

가. {나무가 물이 빠지는} 기 물 오르기 그 전에 안 되고. 물이 빠졌을 때 그때 나무가 비 봤다가.

(2) 나무 물이 올라와삐다

'나무에 물이 올라와삐다'는 '나무가 물기를 많이 머금고 있다', '나무가 물을 많이 빨아들이고 있다'라는 의미이다. 3월이 되면 나무는 싹을 틔우기 위해 물기를 많이 머금고 있는데 이런 상태를 이르는 말이다. 물이 많이 오른 나무로 죽방렴을 만들면 벌레가 나무를 파먹어 나무가 썩기도 하고 죽방렴을 만들어도 바닷물을 흡수해 나무가 물러져 죽방렴의 수명이 길지 않다고 한다.

가. {물이 올라왔삐면} 벌레들이 나 벌레 들이 파 묻삐고 그러께로.

(3) 수명이 없다/ 수명이 짜리다

'수명이 없다, 수명이 짜리다'는 '죽방렴이 오래 가지 못 하고 빨리 썩다'라는 의미이다. '짜리다'는 '짧다'의 경상도 방언형이다. 물이 오르는 나무를 사용하면 벌레가 생겨 나무가 썩거나 바다에 박아 놓아도 물기가 많아 쉽게 물러진다고 한다.

가. 지금 인자 비가지고 어장을 막기도 하거 그라는데 막는 건데 수명이 {수명이 없다는기라} 내가 말하는 거는 빨리 썩는다 이 말이지.
나. 그럴 때는 나무가 이 바다가 들어 가도 {수명이 짜리고}.

(4) 물이 바르다

'물이 바르다'는 것은 물의 속도가 어떠하든 물이 흘러가는 모양이 바르다는 것이다. 이것은 고기가 잘 잡히는 좋은 발의 조건 중 하나로 죽방렴을 만들 때는 물의 흐름이 바른 곳에 발을 세운다고 한다. 그렇게 하면 물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고기 떼가 죽

방렴 안으로 들어오기가 쉽기 때문이다.

가. {물이 딱 이래 발라야} 바로 들어오지. 이리 니리 가는데 요리 해놓으면 요리 피해 갔부거든.

이상의 죽방렴 만들기에 관련된 내용을 어휘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죽방렴 만들기 관련 어휘

조사 어휘	
재료	대나무/ 대, 참나무, 발나무, 꼬장이
도구	말/ 박말/ 말뚝/ 침, 매/ 목매/ 망치, 물레/ 발틀, 발돌, 수망장 막는 배
시기	간조시
작업 과정	(1) 나무 베다/ 나무 비다 (2) 돌 붓다, 돌 쌓다 (3) 박말을 박다, 구녕 뚫다 (4) 나무를 맞대다, 말을 쏙쏙 빼내다, 쏙쏙 주엏다, 폭 들어가다 (5) 매로 박다 (6) 나무 올리다/ 나무 꽂다/ 나무 박다/ 꼬장이 꼽다 (7) 대 찌갠다 (8) 줄로 끼다. 줄로 매다 (9) 대로 엮다, 대껍데기로 매다 (10) 짐돌 매다
기타	(나무)물 오르다, 물 빠지다, 물 흐르다, 수명이 없다, 물이 바르다

2.3. 죽방렴 보수하기 관련 어휘

쇠를 사용하기 때문에 보수를 그리 자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하지만 고기를 가두는 발통 안은 여전히 참나무, 대나무를 이

용해 만들므로 보수가 필요하다고 한다. 발통 안을 보수할 때는 앞서 살핀 것처럼 발통 안의 등판이라는 데에 올라서서 작업을 한다.

발 보수하기는 하위 항목을 도구, 행위, 상태로 두어 어휘를 조사, 정리하였다.

2.3.1. 도구

(1) 적낫

'적낫'은 죽방렴에 붙은 적을 떼어 내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이다. 적은 바다에 사는 갑각류인데 죽방렴에 붙어 기생하는 것으로 이것이 죽방렴에 많이 붙어 있으면 발이 상하므로 떼 내야 한다. 적낫은 낫 모양으로 생겨서 적을 긁어내면 떨어진다고 한다. '적+낫'의 합성 어휘로 적을 떼어내는 낫이므로 이런 명칭을 사용한다.

2.3.2. 행위

(1) 적 긁다/ 적 치다/ 적 낳는다

적은 바다에 사는 갑각류인데 죽방렴에 붙어 기생하는 이것을 도구를 이용해 떼어 내야 한다. 이런 행위를 '적 긁다, 적 치다, 적 낳는다'라고 연어 형식으로 사용한다. 예전에는 적낫으로 적을 떼어 냈지만 요즘은 세척지로 물발을 세게 해 붙은 적을 떼 낸다고 한다.

가. 거게 한창 크고 있거든. 이 시기에 커가지고 종자를 뿌려서 이 시기에 커서 놔두면 크고 대 같은 거 물이 빠져야 돼. 호미 같이 생겼는데 {긁지} 이제.

나. 적 낳는다 그러고 {적 친대} 그러고. 요즘은 그것도 뭐 세척기 기계가 차 세척하고 세척하는 건 따로 있어요.

(2) 배를 꿉다/ 배를 말리다

배를 오래 사용하면 속도가 떨어진다. 이는 배 아랫부분이 물기를 많이 머금어 배가 무거워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의 속도를 올리기 위해 한 번씩 배를 육지로 올려서 배 아랫부분을 불로 말려 타면 배의 속도가 붙는다고 하는데 이를 위한 작업을 '배를 꿉다, 배를 말리다'라고 한다.

가. 배를 끄 올리놓고 말리가주고 밑을 나무를 불로 나무불 이리 해가주고서 {배를 막 꿉는거라}. 그래야 그 물이 숭숭 빼야 있는 {그 배가 마르면서} 속력도 있고.

(3) 이매다

'이매다'는 '끈, 줄 따위를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단단히 잡아매다'의 의미로 '매다, 묶다'의 방언형이다.

가. 옆에 기계 같은 거를 발틀이라 카고 조그만한 돌을 줄로 {이매기위해서} 주먹만한 돌로 매가지고 도자리 싸가지고 이게 넘기거든. 실 돌리 감으면서 그걸 발돌이라 카고 실 감아 놓는 돌.

2.3.3. 상태

(1) 들통이 나다/ 나무가 뜨다

죽방렴 설치한 지가 오래되면 돌에 박아 놓은 짐목(장목)인 참나무가 돌에 제대로 박혀있지 않고 뜨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를 '들통이 나다'라는 연어 형식으로 표현한다. 또는 '나무가 뜨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들통이 나면 말을 이용해 다시 짐목을 교체하거나 매로 단단히 박는 보수 작업을 해야 한다.

가. 수면 위는 개안은데 수 밑으로 이 박음 거게 와 그 땅허고 물

허고 이 사이가 거 사이가 {들통이 나는기라}.

(2) 발 상하다

죽발렴 어장이 태풍이나 바람으로 부서져 제대로 구실을 못하게 되는 것을 '발 상하다'라고 표현한다.

가. 그게 {발도 상하고}.

3. 결론

이상으로 원시 어법인 죽방렴에 관한 어휘 조사를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지족 2리에서 3대째 죽방렴에 종사하는 제보자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조사내용은 죽방렴 관련 명칭, 죽방렴 만들기, 보수하기 관련 어휘로 구체화 하였고, 그에 해당하는 하위 항목을 조사하였다.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수집 자료

조사어휘[12]		음성자료		영상자료	
총 어휘 수	미등재 어휘	구술/전사	분절 음성	사진	동영상
222	180	7/7	212	35	3

1) '죽방렴(竹防簾)'은 말 그대로 대나무를 이용해 만든 함정어구로 지역의 사람들은 '발'이라고 한다. 지역에서 발을 부를 때는 앞에 주인의 이름이나 주위 지명을 붙여 '권택이발, 한영발'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발을 운영하는 사람을 '발쟁이'라 하고 발에서 일

12) 조사어휘 항목 수는 죽방렴 관련 전체 어휘 수이며 본 논문에서는 '죽방렴 관련 명칭, 죽방렴 만들기'에 관련된 어휘에 대해서만 논의하였다.

하는 사람은 발일꾼, 삯꾼이라 부르고, 죽방렴을 만드는 전문 기술자는 '선수'라 한다. 고기가 많이 드는 발을 '좋은 발'이라 하고 그렇지 못 한 발을 '후진발, 돌째이발'이라 한다. 죽방렴은 크게 발통과 날개인 발카지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외에도 발장, 문, 사목, 수망장, 짐돌, 쇠발 등이 있었다.

2) 죽방렴을 만들 때는 먼저 바다 속에 큰 돌을 쌓아 죽방렴의 형태를 만들고 그 위에 참나무를 박아 세운다. 그 다음 고기가 모이는 발통을 만들고, 날개에 해당되는 살을 만든다. 전통 방식으로 죽방렴을 만드는 데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며, 살의 길이는 집안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의 물 높이와 비슷하다고 한다.

3) 또 발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수를 해주어야 한다. 참나무 기둥에 붙은 적을 떼어내거나 바다 속에 박아놓은 참나무가 뜰 경우 다시 박아주는데 참나무가 뜨는 것을 '들통이 나다'라고 한다.

본 여구는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지역의 죽방렴 어법에 관한 어휘로 타 지역 죽방렴 관련 어휘와의 비교 연구는 다음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한 원시 어법인 '죽방렴' 관련 어휘를 연구가 우리말의 외연을 넓히고, 어로 방식과 관련된 어휘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홍기옥, 『2011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4』, 국립국어원, 2010.
홍기옥 외, 『2011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5』, 국립국어원, 2010.

2. 논문

이기욱, 「한국의 도서문화 -서남해 도서를 중심으로」, 목포대학 도서문화연구소, 『도서문화』11집, 1993, pp. 375-416.
홍기옥, 「경남 남해군 어촌지역 생활어휘 연구」, 한민족어문학회, 『한민족어문학』58호, 2011, pp. 273-299.
홍기옥, 「원시 어로방식 '돌살' 관련 어휘 연구」,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연구』75호, 2015, pp. 158-186.

3. 단행본

국립민속박물관, 『경남 어촌민속지』, 필기획, 2002.
국립민속박물관, 『어촌민속지』, 필기획, 1996.
국립수산기술훈련소, 『정치망어업』, 1984.
나승만 외 7인, 『다도해 사람들』, 경인문화사, 2003.
이근우 외 4명, 『한국 수산지』, 서울: 새미, 2010.
이병기·박승원·김진건, 『연근해어업개론』, 태화출판사, 1989.
이태원, 『현산어보를 찾아서』, 서울: 청어람 미디어, 2002.
주강현, 『관해기 1-3』,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2006.
최덕원, 『남도의 민속문화』, 밀알, 1994.
한국해양수산부, 『한국의 해양문화 1-5』, 서울: 해양수산부, 2002.
홍기옥 외, 『2012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5』, 국립국어원, 2011.
홍기옥 외, 『2012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5』, 국립국어원, 2012.

(**투고일**: 2017. 10. 30 **심사완료일**: 2017. 12. 19 **게재확정일**: 2017. 12. 21)

이름: 홍기옥
소속: 위덕대학교 자율전공학부
주소: 경북 경주시 강동면 동해대로 261 위덕대학교
전화번호: 054-760-1754
전자우편: gohong@uu.ac.kr

[Abstract]

A Study on Vocabulary Related to 'Bamboo Screen'

- Bamboo Related Name, Making and Repair Related Vocabulary -

Hong, Gi-O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vocabularies related to 'Bamboo Screen', which is a native language used mainly on the southern coast, using the difference of tides. It can be regarded as a basic work for establishing a vocabulary related to the pronunciation of fishery area by cataloging the vocabulary related to 'bamboo Screen' and building a related database (DB). The related vocabulary survey was conducted by selecting informants who own bamboo and engaged in three related fisheries, mainly in Samdong-myeon area of Namhae-gun, Gyeongsang nam-do.

Through the survey, it was found that in the region, the name of the bamboo flute called "foot, field", the part, the worker, the name of the unit, the bamboo building and fishery activities, the related vocabulary related to repairing, the processing of the catch, We investigated and arranged vocabularies related to bamboo. Through the survey, 222 vocabularies related to 'Bamboo Screen' were collected, 180 of which were not included in the standard Korean language dictionary or the Korean language linguistic informatics dialect searcher. In addition to vocabulary, related voice data (dictation 7, segmental voice 212), image data (picture 35, video 3) could be collected.

Key words: bamboo field, bamboo Screen anchovy, primitive fishery method, primordial phrase